

우리나라 명절음식의 인지도에 관한 연구

윤 은 숙

서울보건전문대학 전통조리과

A Study on the Knowledge on the Korean Festival Foods

Un-Sook Yoon

Dept. of Traditional Cuisine, Seoul Health Junior College

Abstract

This study was surveyed to know Korean festival foods.

1. 62.97% of the students had high level of interest in festival foods, but that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y sex and major. 2. The percentage of which they knew about festival foods 92.7% in Seolnal (New Year's day), 89.6% in Chongwol Daeboreum (the 15th of January), 82.0% in Sambok (the period of summer hot day), 74.7% in Chuseok (Korea thanks giving day), 43.3% in Hansik (the day which eat cold foods), and less than 30% in the other festival day. 3. The festival day which are celebrated was Seolnal, Chuseok, and Chongwol Daeboreum in the order, and Dongji was a lower percentage than the other previous studies. 4. The festival day which they had to succeed was Seolnal, Chuseok, Chongwol Daeboreum, and Dongji in the order of the higher ratio.

I. 서 론

우리나라는 춘하추동의 사계절이 뚜렷하며 각 계절에 따라 생산에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명절마다 그 계절에 생산된 새로운 식품을 이용한 독특한 음식이 발달하게 되었다. 명절이나 계절의 음식을 절식과 시식이라고 하며¹⁾, 오늘에 이르기까지 고유한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다. 현대 사회구조의 도시화, 산업화 및 핵가족화 등의 요인으로 우리의 전통음식인 명절음식의 의미는 점차 쇠퇴하여 가고 있는 실정이다. 다행히도 우리의 전통음식에 관한 연구가²⁻⁶⁾ 수행되어 그 중요성이 차츰 대두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일부 대학생을 중심으로 명절음식에 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알아봄과 동시에 명절음식의 실시 현황에 관하여 알아봄으로서 우리의 전통음식을 계승 발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제시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기간

잊혀져가는 명절음식에 관한 현황 및 인지도 조사를 위하여 경기도와 제주도 소재 전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1994년 5월부터 1994년 8월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명절음식에 관한 문항 21문항(세부문항 51문항)과 일반사항 22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400부를 배포하여 328부를 회수하였으나 자료로 사용하기에 부적절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289부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2. 연구내용 및 분석방법

설문지의 구성은 명절음식에 관한 관심도와 중요성, 인지도 및 계승에 관한 의견, 명절음식의 실시 현황, 강¹⁾, 임²⁾, 황 등³⁾의 자료를 근거로 하여 작성된 명절음식을 나열하고 어느 명절음식인지를 맞추는 항목과, 조사대상자의 성별, 나이, 학년, 전공, 본인 및 부모님의 고향과 주성장지, 가족형태 및 형제 순위, 수입, 종교, 주거형태, 부모님의 학력 및 직업 등의 일반사항 등으로 구성되었다. 자료의 분석은 SAS⁸⁾를 이용하여 백분율 빈도를 구하고 Chi-square(χ^2)를 사용하여 검정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상황

조사대상자는 남자가 12.1%, 여자가 87.9%였으며, 연령은 만 18~20세가 54.7%, 만 21~25세가 41.1%, 만 26세 이상이 4.2%로 주로 만 18세~25세까지로 나타났으며, 전공별로 보면 식품관련학도가 68.9%였으며, 2학년 학생이 90.7%를 차지하였다. 한편, 본적은 서울이 27.7%로 가장 많았으며 강원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10~20%로 비교적 고르게 나타났으며, 주성장지는 서울과 경기도가 71.7%, 제주도가 11.1%였으며,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강원도의 순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형태는 핵가족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상황

상황변수	항목	빈도(N)	백분율(%)	상황변수	항목	빈도(N)	백분율(%)
성 별	남	35	12.1	연 령 (세)	만 18~20	158	54.7
	여	254	87.9		만 21~25	119	41.1
					만 26이상	12	4.2
	계	289	100.0		계	289	100.0
전 공	식품관련과	199	68.9	학 년	1	27	9.3
	식품비관련과	90	31.1		2	262	90.7
	계	289	100.0		계	289	100.0
본 적	서울	80	27.7	주 성장지	서울	160	55.4
	경기도	36	12.5		경기도	47	16.3
	강원도	15	5.2		강원도	6	2.1
	충청도	29	10.0		충청도	12	4.1
	경상도	42	14.5		경상도	8	2.7
	전라도	56	19.4		전라도	24	8.3
	제주도	31	10.7		제주도	32	11.1
	계	289	100.0		계	289	100.0
출생순위	첫째	92	31.8	가족형태	핵가족	247	85.5
	중간	102	35.3		대가족	40	13.8
	막내	87	30.1		무응답	2	0.7
	외동	8	2.8				
	계	289	100.0		계	289	100.0
가정의 월수입 (이상-미만, 단위: 만원)	<70	16	5.5	종교	카톨릭	38	13.2
	70~100	32	11.1		기독교	81	28.0
	100~150	103	35.6		불교	49	17.0
	150~200	62	21.5		유 교	3	1.0
	200~250	24	8.3		무 교 및		
	250이상	29	10.0		기타	118	40.8
	무응답	23	8.0				
	계	289	100.0		계	289	100.0

2. 명절음식에 대한 관심도 및 중요성 인식

명절음식에 관한 관심도 및 인지도는 표 2의 결과와 같이 관심이 있는 학생이 62.97% 관심이 없는 학생이 37.0%로 대체로 명절음식에 관하여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명절음식에 관한 중요성도 76.1%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여 대체로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나, 표 2의 결과와 같이 남녀별, 전공별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명절음식에 관한 인지도에 관하여는 거의 모른다가 22.5%(65명), 조금안다가 50.2%(145명), 보통이다가 24.9%(72명), 잘안다가 2.1%(6명), 매우잘안다가 0.3%(1명)로 대체로 명절음식에 관하여 안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명절음식의 중요성 인식은 남,녀, 전공.비전공에 관계 없이 모두 70% 이상이 대체로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3. 명절음식에 대한 지식

강¹⁾, 임²⁾, 황 등³⁾의 자료에 의한 명절음식을 나열하고 그것이 어느 명절의 음식인지를 선택하도록 하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표 3과 같이 설날과 정월대보름, 삼복, 동지, 추석, 입춘 음식을 가장 잘 알고 있었으며, 사월초파일, 단오, 유두 등의 음식은 10% 미만의 학생만이 제대로 알고 있었다.

4. 명절음식의 실시 현황

본 조사에서 명절음식은 주로 명절때에만 차린다는 가정이 69.2% (200명), 집안 경조사때 차린다는 가정이 24.6%(71명), 휴일에 차린다는 가정이 1.0%(3명), 평상시에 자주 차린다는 가정이 1.7%(5명), 기타가 3.5%(10명)로 대체로 명절때에만 명절음식을 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명절 음식의 실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명절음식을 1년에 한번도 차리지 않는 가정이 3.8%(11명)였으며, 1년에 한번을 차리는 가정이 2.1%(6명), 78.9%(228명)가 2~5회의 명절을 차리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회 이상 11회까지 차리는 가정이 3.5%로 보통 1년에 2~5회의 명절음식을 차리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명절별로 차리는 비율을 알아보면 표 4와 같다.

표 2. 명절음식에 관한 관심도 및 중요성 인지

상황변수	항목	구분	빈도(명)	백분율(%)	비고	
명절에 관한 관심도	남	관심있다	24	68.57	$\chi^2=0.535$	
		관심없다	11	31.43		
		계	35	100.0		
	여	관심있다	158	62.20		N.S
		관심없다	96	37.80		
		계	254	100.0		
	총계			289		
	전 공	관심있다	129	64.82	$\chi^2=0.936$	
		관심없다	70	35.18		
		계	199	100.0		
비전공	관심있다	53	58.89	N.S		
	관심없다	37	41.11			
	계	90	100.0			
총계			289			
명절에 관한 중요성 인지	남	중요함	28	80.00	$\chi^2=0.499$	
		중요하지않음	2	5.71		
		모름	5	14.29		
	계	35	100.0			
	여	중요함	192	75.59		N.S
		중요하지않음	23	9.06		
		모름	39	15.35		
	계			254	100.0	
	총계			289		
	전 공	중요함	156	78.39	$\chi^2=2.398$	
중요하지않음		17	8.54			
모름		26	13.07			
계			199	100.0		
비전공	중요함	64	71.11	N.S		
	중요하지않음	8	8.89			
	모름	90	20.00			
계			90	100.0		
총계			289			

즉, 설날이 96.5%로 가장 많이 차리고 있으며, 추석과 정월대보름이 각각 91.3%와 70.9%로 그 다음으로 많이 차리고 있어 설날, 추석, 정월대보름이 우리나라의 3대 명절인 것을 알 수 있으며, 동지와 삼복도 30~40%정도 차리고 있었으며, 그 이외의 명절은 거의 차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박⁶⁾의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으며

설날, 추석, 정월대보름은 임²⁾, 조 등³⁾, 설 등⁵⁾의 연구와 비슷하였으나 동지를 차리는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보아 최근 5년 사이에 동지의 풍습이 점차 약화 되어 감을 알 수 있었다.

5. 명절음식의 계승

표 3. 명절음식에 관한 지식

명절	정답 (빈도수, %)	오답 (빈도수, %)													총계	
		설날	정월 대보름	입춘	삼짇날	사월 초파일	한식	단오	유두	칠석	삼복	추석	동지	선달 그믐		잘 모름
설날	268 (92.8%)	-	2 (0.7%)	1 (0.3%)	1 (0.3%)	0 (0.0%)	2 (0.7%)	1 (0.3%)	0 (0.0%)	0 (0.0%)	0 (0.0%)	1 (0.3%)	0 (0.0%)	0 (0.0%)	13 (4.6%)	289 (100.0%)
정월 대보름	259 (89.7%)	1 (0.3%)	-	3 (1.0%)	2 (0.7%)	0 (0.0%)	3 (1.0%)	16 (5.6%)	0 (0.0%)	0 (0.0%)	0 (0.0%)	2 (0.7%)	0 (0.0%)	0 (0.0%)	3 (1.0%)	289 (100.0%)
입춘	72 (25.0%)	3 (1.0%)	6 (2.1%)	-	17 (5.9%)	15 (5.2%)	6 (2.1%)	19 (6.6%)	6 (2.1%)	0 (0.0%)	1 (0.3%)	3 (1.0%)	0 (0.0%)	1 (0.3%)	140 (48.4%)	289 (100.0%)
삼 짇 날	47 (16.3%)	1 (0.3%)	0 (0.0%)	24 (8.3%)	-	15 (5.2%)	9 (3.1%)	46 (15.9%)	14 (4.9%)	7 (2.4%)	3 (1.0%)	2 (0.7%)	0 (0.0%)	3 (1.0%)	118 (40.9%)	289 (100.0%)
사 월 초 파 일	14 (4.8%)	2 (0.7%)	5 (1.7%)	18 (6.2%)	9 (3.1%)	-	8 (2.8%)	10 (3.5%)	11 (3.8%)	20 (6.9%)	1 (0.3%)	1 (0.3%)	0 (0.0%)	1 (0.3%)	189 (65.6%)	289 (100.0%)
한 식	125 (43.3%)	1 (0.3%)	0 (0.0%)	15 (5.2%)	10 (3.5%)	10 (3.5%)	-	12 (4.2%)	8 (2.8%)	5 (1.7%)	4 (1.4%)	4 (1.4%)	3 (1.0%)	3 (1.0%)	89 (30.7%)	289 (100.0%)
단 오	17 (5.9%)	1 (0.3%)	2 (0.7%)	6 (2.1%)	6 (2.1%)	11 (3.8%)	6 (2.1%)	-	13 (4.5%)	18 (6.2%)	2 (0.7%)	1 (0.3%)	2 (0.7%)	10 (3.5%)	194 (67.1%)	289 (100.0%)
유 두	18 (6.2%)	2 (0.7%)	1 (0.3%)	4 (1.4%)	10 (3.5%)	9 (3.1%)	11 (3.8%)	5 (1.7%)	-	22 (7.6%)	1 (0.3%)	1 (0.3%)	2 (0.7%)	9 (3.1%)	194 (67.1%)	289 (100.0%)
칠 석	25 (8.7%)	0 (0.0%)	1 (0.3%)	3 (1.0%)	8 (2.8%)	8 (2.8%)	7 (2.4%)	8 (2.8%)	46 (15.9%)	-	25 (8.7%)	5 (1.7%)	1 (0.3%)	3 (1.0%)	149 (51.6%)	289 (100.0%)
삼 복	237 (82.0%)	2 (0.7%)	0 (0.0%)	2 (0.7%)	0 (0.0%)	1 (0.3%)	0 (0.0%)	1 (0.3%)	2 (0.7%)	3 (1.0%)	-	0 (0.0%)	0 (0.0%)	0 (0.0%)	41 (14.2%)	289 (100.0%)
추 석	216 (74.7%)	5 (1.7%)	1 (0.3%)	2 (0.7%)	5 (1.7%)	2 (0.7%)	0 (0.0%)	8 (2.8%)	2 (0.7%)	0 (0.0%)	0 (0.0%)	-	2 (0.7%)	1 (0.3%)	45 (15.6%)	289 (100.0%)
동 지	228 (78.9%)	0 (0.0%)	6 (2.1%)	1 (0.3%)	1 (0.3%)	2 (0.7%)	1 (0.3%)	5 (1.7%)	1 (0.3%)	5 (1.7%)	1 (0.3%)	1 (0.3%)	-	12 (4.2%)	25 (8.6%)	289 (100.0%)
선 달 그 믐	37 (12.8%)	87 (30.1%)	7 (2.4%)	4 (1.4%)	4 (1.4%)	4 (1.4%)	5 (1.7%)	4 (1.4%)	1 (0.3%)	4 (1.4%)	2 (0.7%)	3 (1.0%)	4 (1.4%)	-	123 (42.6%)	289 (100.0%)

표 4. 명절음식을 차리는 현황

(인원수, %)

명절 실시여부	설날	정월 대보름	입춘	삼짇날	사월 초파일	한식	단오	유두	칠석	삼복	추석	동지	선달 그믐
차린다	279 (96.5%)	205 (70.9%)	5 (1.7%)	2 (0.7%)	17 (5.9%)	42 (14.5%)	26 (9.0%)	4 (1.4%)	6 (2.1%)	97 (33.6%)	264 (91.3%)	134 (46.4%)	24 (8.3%)
차리지 않는다	10 (3.5%)	84 (29.1%)	284 (98.3%)	287 (99.3%)	272 (94.1%)	247 (85.5%)	263 (91.0%)	285 (98.6%)	283 (97.9%)	192 (66.4%)	25 (8.7%)	155 (53.6%)	265 (91.7%)
계	289 (100.0%)	289 (100.0%)	289 (100.0%)	289 (100.0%)	289 (100.0%)	289 (100.0%)	289 (100.0%)	289 (100.0%)	289 (100.0%)	289 (100.0%)	289 (100.0%)	289 (100.0%)	289 (100.0%)

표 5. 명절음식의 계승여부

(인원수, %)

명절 계승여부	설날	정월 대보름	입춘	삼짇날	사월 초파일	한식	단오	유두	칠석	삼복	추석	동지	선달 그믐
계승해야 됨	269 (93.1%)	206 (71.3%)	26 (9.0%)	22 (7.6%)	27 (9.3%)	62 (21.5%)	96 (33.2%)	16 (5.5%)	32 (11.1%)	84 (29.1%)	261 (90.3%)	139 (48.1%)	39 (13.5%)
계승필요 없음	20 (6.9%)	83 (28.7%)	263 (91.0%)	267 (92.4%)	262 (90.7%)	227 (78.5%)	193 (66.8%)	273 (94.5%)	257 (88.9%)	205 (70.9%)	28 (9.7%)	150 (51.9%)	250 (86.5%)
계	289 (100.0%)	289 (100.0%)	289 (100.0%)	289 (100.0%)	289 (100.0%)	289 (100.0%)	289 (100.0%)	289 (100.0%)	289 (100.0%)	289 (100.0%)	289 (100.0%)	289 (100.0%)	289 (100.0%)

명절음식의 계승에 관한 질문에 관하여는 95.8%가 계승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명절음식이 계승되어야 하는 이유로는 '식생활문화의 계승때문에'가 60.2%, '조상의 얼이 담겼으므로' 27.7%, '자녀의 교육상' 1.7%, '제철의 음식'이므로 6.2%로 응답하였다. 이는 조 등³⁾의 연구 결과 73.3%가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고 답한 것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점차 명절음식에 관한 관심도는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또, 각 명절별로 계승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명절을 보면 표 5의 결과와 같으며, 표 4의 결과에서 알 수 있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명절의 비율 보다 표 5에 나타난 계승되어야 할 명절음식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현재 차리고 있지 않는 명절도 계승되어야 한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계승되어야 할 명절 역시 설날, 추석, 정월대보름의 순으로 나타났다.

IV. 결 론

본 연구는 우리의 전통음식에 관한 인식도를 바르게 알고자 경기도와 제주도의 일부 대학생을 중심으로 명절음식을 차리는 현황과 지식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1. 명절음식에 관한 관심도는 남,녀 및 전공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으나 62.97%의 학생이 관심이 있다고 대답하였으며, 명절음식의 중요도에 관하여는 76.11%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2. 각각의 음식을 보고 어느명절의 음식인지를 맞출 확률은 설날이 92.7%, 정월대보름이 89.6%, 삼복이 82.0%, 추석이 74.7%, 한식이 43.3% 였으며, 그 이외의 명

절은 제대로 알고 있는 학생이 30% 이하였다.

3. 명절음식을 차리는 현황은 설날, 추석, 정월대보름의 순으로 차리며 이전의 연구보다 동지는 차리는 비율이 상당히 감소하였다.

4. 계승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명절로는 설날, 추석, 정월대보름, 동지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명절을 차리고 있는 비율보다 더 많은 학생이 계승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현재는 설날, 정월대보름, 추석이 주요 명절로 인식되고 있으며, 나머지 명절은 점차 위축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우리의 고유한 명절 음식에 관한 적절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참고문헌

1. 강인희, 한국의 맛, pp 380-386,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2).
2. 임양순, 우리나라 절식에 관한 연구, 한국식문화학회지, 1(4), 361-370 (1986).
3. 조연숙, 홍상옥, 한재숙, 전통음식에 관한 도시 주부들의 의식 조사 연구-대구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식문화학회지, 3(3), 281-292 (1988).
4. 이영남, 신민자, 김복남, 전통음식의 현황에 관한 연구, 한국식문화학회지, 6(1), 71-81 (1991).
5. 설민영, 김을상, 한양일, 청주지역 세시음식에 관한 연구, 한국식문화학회지, 6(3), 257-264 (1991).
6. 박영선, 울릉도 지역 주부들의 전통음식과 금기식품에 대한 인식, 한국조리과학회지, 10(2), 151-160 (1994).
7. SAS/Guide for personal computers, SAS Institute Inc., Cary, North Carolina (1988).
8. 황혜성, 한복려, 한복진, 한국의 전통음식, 96-113, 교문사 (1993).